

새로나온 詩集

草堂洞 소나무떼

신봉승 지음

시인으로 문필활동을 시작했으면서도 그동안 극작가로 더 잘 알려졌던 신봉승씨가 '30년 외도' 끝에 펴낸 첫시집. '읽은 것이 더 많았던 삶' '아픔과 마음으로 가득했던 나날' '방황도 아름다운 꿈이어서' '지금은 더 가까이 다가서서'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90여편의 작품을 묶었는데, 5공치하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배면에 깬 「민초론」 연작시 등이 돋보인다.

나남 / A5신 / 142면 / 2500원

瓦斯燈

具常 외 엮음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에서 보는 것 같은 탁월한 彫塑性 이미지를 한국시에 수월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는 金光均의 詩全集. 첫시집 「와사등」(1939)을 비롯, 「기항지」(1947), 「황혼가」(1957) 등에 수록된 시편을 한데 모으는 한편, 기간 시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작품 및 미발표작 14편도 발굴해 같이 수록했다. 권말에 상세한 작품연보를 실어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준다.

심철당 / A5 / 156면 / 3000원

녀석

원태희 지음

1985년 「詩文學」지를 통해 문단에 나온 시인의 제3시집. 「귀지」 상재 이후 쓰여진 작품 6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6行詩'가 주류를 이루는 「형이하학」 연작이 특징적이다. 회색빛으로 상징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짙은 회의주의가 이 시집의 전편을 관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회의주의조차 성실한 삶을 위한 회의주의임을 평론가 최동호는 지적하고 있다.

작은책 / A5신 / 146면 / 2200원

비가

유영진 지음

1989년 제6회 가톨릭언론상 가요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대중가요 작사자의 서정시집. "객석 천정 어디쯤에 / 세상을 던져둔 채 / 마음으로 노래하는" 「무명가수」를 비롯, 대중적 정서에 친근하게 맞닿을 수 있는 작품 70여편을 '추억의 커튼 너머로' '내 그리운 사람은' '이 땅의 노래' 등 3부로 나누어 실었다.

영인문화사 / A5신 / 118면 / 2000원

28 출판저널

밤에 쓰는 편지

채희문 지음

'牛耳文友會' 동인으로 일련의 '우이동詩'를 꾸준히 발표해온 시인이 첫시집 「가을레슨」에 이어 2년 만에 내놓은 제2시집. 短詩형식의 깔끔함 속에 가볍게 읽히면서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시를 쓴다는 것은 / 내심 깊숙한 내실까지 / 내시경으로 보는 일"이라는 시인의 '詩是'가 풍부한 서정성을 동반하고 펼쳐진다.

신원 / A5신 / 138면 / 2000원

80년대 젊은 시인들

최동호 엮음

80년대 한국시단을 이끌어갔던 젊은 시인들의 시적 성과를 정리함으로써 90년대 한국시를 위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엮어진 앤솔로지.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의 이성복을 비롯해 최승자, 김정환, 박재규, 박노해, 박남철, 김용택, 최승호, 이운택, 장정일, 황학주, 백무산, 이문재, 하재봉, 기형도 등의 시편이 수록돼 있다.

시인문학 / A5신 / 254면 / 2800원

나에게 쓰는 편지

이근풍 지음

무크 「오늘의 문학」을 통해 詩作활동을 시작한 시인의 첫시집. 시인 스스로 이 시집을 일러 '생활시집'이라고 한 것에서 보듯, "내 마음은 / 섬이다 / 작은 섬이다 / 마음대로 / 육지 오가지 못하는 / 작은 섬이다 / 수평선 너머 / 바라보며 / 육지 그리는 / 작은 섬이다" 같은 일상성과 일상어법의 친근함을 보이는 작품 40여편이 수록돼 있다.

삼한출판 / A5신 / 146면 / 2500원

남은 햇살로

이상렬 지음

전북 이리지역 문학동인인 '麥浪時代'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시인'의 첫시집. 시인 朴正萬의 죽음을 두고 쓴, "죽어서 네 집에 비로소 / 평화가 왔더라는 말을 듣고 / 모래처럼 슬픔이 쌓인다"는 「강 같은 평화」의 한 구절에서 보는 것 같은 '죽음에의 고통'이 특징적인데, 책머리에 붙인 발문에서 작가 윤홍길은 이상렬의 시세계를 '淸澗의 감수성'이라고 비유하기도.

고려가 / A5 / 164면 / 2500원

祖國

金昭影 지음

서정시집 「새로운 言語」를 비롯, 일련의 장시와 서사시를 꾸준히 발표해온 시인의 서사시 및 장시 묶음. 1964년에 처음 발표됐던 서사시 「조국」과 「어머니」 「잠 못이루는 밤」 등의 장시 7편을 한데 모았다. 권말에는 그 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단의 언급으로부터 소외돼온 김소영의 시세계를 본격조명한 민병욱의 평론을 실었다.

예문출판 / A5 / 218면 / 4000원

1990 신춘문에 당선시집

조성화 외 지음

올초 각일간지 문화면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신춘문에 당선시인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앤솔로지. 조성화(경향), 박라연(동아), 김유석(서울), 김용길(세계), 전원책(조선), 임영봉(중앙), 이운학(한국) 등의 시편이 수록돼 있는데, 신춘문에 당선작과 함께 그들의 신작 시들도 같이 실어 90년대 한국시단의 움직임 전망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문학세계사 / A5신 / 114면 / 2600원

하늘江

조남기 지음

「永上에 서서」 「부활」 등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목사시인'의 제4시집. 이른바 '기독교 시'가 주류를 이루는데, 시인은 종래의 기독교 시가 "기독교적 정서를 알팍한 낱말로 도장하는 데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기독교시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해서 일반언어나 시어를 유도하여 기독교적 정서를 용해, 연계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종로서적 / A5신 / 158면 / 2000원

맑은 하늘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최복현 지음

'거목문학회' 동인으로 활동하며 「세상살이」 「만남으로 사는 우리」 등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제4시집. 시인 스스로의 고백대로 "의무교육 이외에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고 신춘문에 당선한 적도 없지만" 우리네 삶의 현장을 동정과 분노의 정서로 진솔하게 겨안는, 얼핏 거칠어 보이는 시편들이 친근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박우사 / A5신 / 154면 / 2800원

끝내 나를 버리시나이까

김옥진 지음

「산골소녀 옥진이시집」으로 장안의 지가를 올렸던 '장애자 시인'의 제2시집. 첫시집 상재 이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약화돼 가는 병세 때문에 호흡조차가누기가 어려워 기도의 자세로 살고 있는 하루하루 삶과 그 삶의 고통을 밝고 맑은 서정으로 승화시킨 작품 70여편이 수록돼 있다.

사사연 / A5 / 160면 / 2000원

앞세는 저도 가지는 남아

이충섭 지음

첫시집 「아침이 나를 붙잡고」(1988)를 통해 흠뻑새 물씬한 향토의 안온함을 펼쳐 보였던 시인의 제2시집.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삶의 순수성 지향, 아름다움에의 본능적 추구, 동심적 세계의 깨끗함을 담은 「사발고지 이야기」 연작 등 80여편의 작품을 한데 모았는데, 時調 작품도 함께 수록한 것이 특징.

뿌리 / A5신 / 124면 / 2000원

떠도는 이 밤에

성목 지음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비구니시인'의 첫시집. 32세라는 뒤늦은 나이에 출가해 "불법의 바닷속을 조심스레 자맥질하며 자기 안의 부처와 자기 밤의 부처를 향해 기울인 절망적인 애정과 번뇌의 파도"를 禪詩적 간결함 속에 담았다. '영산悲歌' '떠도는 이 밤에' '웃기스런 인연처럼'의 3부로 나누어 모두 100여편의 작품을 수록.

삼한출판 / A5신 / 148면 / 2500원

나무들은 겨울에도 나무들이다

최봉섭 지음

1984년 「현대문학」지에 「조선의 북소리」가 추천돼 문단에 나온 '노동자시인'의 첫시집. 시인 조병화의 지적대로 "건전한 사상과 그것을 담는 시어의 물결이 한결같이 무리가 없고 조직적인" 작품 80여편이 6부로 나누어 수록돼 있는데, 생산직 근로자로서 겪는 현장체험에 그 시적 기반을 두면서도 선부른 민주주의의 함정을 피하고 있다.

신태양사 / A5신 / 142면 / 2500원